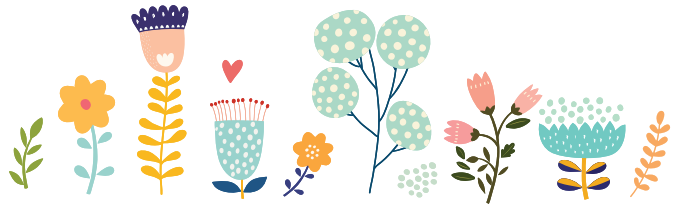


무지개 언약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복음성가

지416장
주 말씀 향하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8-17

- 0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0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 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
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
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
거니라
-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
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 나아가 모든 생물과 가축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언약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에게 다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필요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무지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향한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 적이 있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 자연현상, 추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바벨탑 사건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복음성가

지 343장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1-9

- 0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0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0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0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0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0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0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0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0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1. 노아의 홍수 후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과학 기술인 벽돌 제조 기술로 바벨탑을 쌓자고 결정하고 세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고, 둘째,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고, 셋째,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제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높게 쌓으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위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쌓은 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2. 바벨탑 사건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사랑과 진심을 담아 얘기했는데 남이 그 말을 가지고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말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옥이 따로 없고, 말과 마음이 잘 통하면 그 관계는 천국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단일 언어를 주신 것은 겸손히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축복을 악용해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결국 그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할 때 생기는 현상은 언어가 혼잡해져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즉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안에도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브람의 소명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복음성가

지125장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29-12:5

-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 0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0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0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0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0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삶 자체가 복이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2. 아브람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먼저 그는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습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위대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소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애굽에서 만난 위기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음성가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10-20

-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 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변방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정 뒤에 도착한 그 땅에서 아브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가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람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람은 애굽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로에게 아내 사래(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손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 사래가 자신의 누이라는 아브람의 거짓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는 아름다운 외모의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람의 실수로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특별한 섭리를 통해, 아브람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때론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기도 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람을, 하나님은 조금씩 다루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반복되는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인생은 없으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삶의 문제나 위기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나머지,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은 없나요?
또 다급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아브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아브람과 롯의 결별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복음성가

지110장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1-17

- 0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 0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 0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 0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 0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 0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 0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 0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 0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 아브람과 조카 롯의 가축과 재산이 많아져 좁은 땅에서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롯과 분가하여 각자 다른 길로 갈 것을 결정하였고, 삼촌으로부터 우선권을 받은 롯은 요단 들만이 펼쳐져 있는 동편 지역을 선택합니다. 롯의 눈에 너무나 좋아 보였던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매력적이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지만 하나님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악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은 부귀영화가 가득하여 롯의 재산을 두기에 좋은 땅이었을지 몰라도 쾌락과 죄악 역시 가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기 쉬운 땅입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소돔 가까이에서 자리를 잡는 것(12절, near Sodom)으로 그치지 않고, 소돔에 들어가 거주하고(창 14:12, in Sodom), 소돔 성의 지위 높은 유력자*가 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그를 인생의 퇴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환경 가운데 머물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자리는 속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환경이 어떠한지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창 19:1에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에 대해 성문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 또는 지역의 장로가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2. 롯이 떠난 뒤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두루 다니라 하신 자리에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여호와의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는 헤브론입니다. 약속 그대로 거룩한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이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롯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스스로 눈을 들어 멸망이 기다리는 땅을 분별없이 바라보았고, 아브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심으로 약속이 기다리는 땅을 선명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게 될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결정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어린시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복음성가

지447장
예수 닦기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1-52

- 41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 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 아이 예수가 열두 살이 되던 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부모는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뒤늦게 아이가 없음을 깨달은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를 찾습니다. 아기 예수는 율법학자인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예수는 선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적,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을 때 아이 예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심을 말씀하십니다.

2. 아이 예수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할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정신적 성장, 키는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몸과 정신이 자라가며, 영적인 관계도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장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몸과 마음, 영성과 사회성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건강한 몸과 정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잘 하고 있는 것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1-12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복음성가

지438장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 01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 0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 0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 0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었더라
- 0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 0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 0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 0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 0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임박한 '주님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엘리야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침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영적 기갈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비 같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들의 죄를 털어놓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2.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는 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며,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하루 빨리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씨를 통해 번식하는 삶을 뜻합니다. 성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력과 좋은 영향력이 남아야 합니다. 축복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과 좋은 영향력을 남기면 축복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변에 끼치고 있는 좋은 영향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복음성가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1-11

- 0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0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0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0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0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 0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 0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0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 0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1.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지니셨기에 배고프셨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2.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3.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즘 나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며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복음성가

지334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9-28

-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 21 또 물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물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 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벳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1. 당시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값비싼 차림의 옷술이 긴 흰옷을 입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면에 침례요한은 보잘것없는 약대 털옷을 입고 초라한 광야에 기거했습니다. 하지만 침례요한은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종교 지도자들과는 견줄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침례요한을 따랐습니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의 인기를 시기하며 그의 정체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자 침례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답합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는 사라져버리는 속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침례요한은 자신이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후에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대답했던 것입니다.
2. 광야의 소리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소리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침례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침례요한이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례요한과 같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에 예수님은 침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누구나 그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신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침례요한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언젠가 사라지게 될 이 땅의 행복과 만족에 두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경할 때, 장차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가정예배" 우리는



박준영, 정주현, 박재민, 박유민 가정



함치영, 양윤희, 함솔민, 함루민 가정



정준용, 장윤수, 정솔 가정

지구촌교회의 수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과 소감을 메일(gmcfamilyworship@gmail.com)로 보내주세요.

예배의 습관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려요



조중연, 정성희, 조성원, 조성진 가정



최진우, 신소영, 최이지, 최이안, 최이연, 최이솔 가정



양승원, 박숙, 양하연 가정



박종석, 김정아, 박민지, 박민우 가정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부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당신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여호와께서 자녀이름 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이름 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자녀이름 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자녀이름 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 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바르고, 모든 일을 성실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 다해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좋으신 하나님!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 평안하고, 늘 건강하도록 함께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